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Career Barrier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Jung chul sang

Department of Youth Cultural Counseling, Hoseo University Professo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장벽 간에서 회복탄력성이라는 심리내적 역량의 관계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장벽 수준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전국 4년제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문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AMOS 23.0과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애착은 진로장벽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복탄력성은 진로장벽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인애착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여 진로장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정,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애착에 대한 정보제공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진로교육을 비롯하여 자기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evance of resilience, which is one of the internal psychological competenc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ult attachment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career barriers. A total of 300 university students from across the country were surveyed online through a specialized research firm over the period from November 10, 2019 till November 20, 2019.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MOS 23.0 and SPSS 23.0 suites, and the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adult attachment of university students firstly had a negative impact on resilience and secondly a positive impact on the career barriers. Third, the resilience of the university student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career barriers. Fourth, in the influence of the adult attachment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barriers, resilience had a mediating effect to mitigate career barriers. Wit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an environment where the information and training on desirable attachment at home and school can be provided, while educational supports can be examin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ograms that can enhance their self-competency, including career education.

Keywords : University Students, Adult Attachment, Career Barriers, Resilience, Mediating Effects

*Corresponding Author : Jung chul sang(Hoseo Univ.)

email: campkorea@hanmail.net

Received July 15, 2020

Revised August 3, 2020

Accepted March 5, 2021

Published March 31, 2021

1. 서론

최근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청년층 취업을 감소,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취업난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진로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의하면, 대학생 10명 중 6명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하는 주제로 '졸업 후 진로'를 보고하였다[1]. 이를 반영하듯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취업불안에 시달리고 있다[2]. 따라서 이 시기의 대학생이 진로결정과 준비를 방해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하여 원활한 진로발달을 도모하는 것은 추후 한국을 이끌어 나갈 인적 자원을 양성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주목되는 변인 중 하나는 진로장벽이다[3].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는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선택 또는 실행과정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4], 이러한 진로장벽은 진로에 대한 수행을 저하시키고 진로결정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진로교육과 상담 장면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 장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진로장벽에 영향을 주는 심리 내적인 요인들이 연구되었는데 특히 애착과 관련된 변인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5-6]. 이와 같이 애착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대인관계를 비롯한 많은 요인들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성인의 애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은 성인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부모와의 애착보다는 또래나 이성과의 애착경험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로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이나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한다. 따라서 성인애착은 성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타인과의 애착을 의미한다[7]. 이러한 성인애착이 불안정할 때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되고 대인관계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반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다양한 대인관계가 보다 적응적으로 기능한다고 밝히고 있다[8].

이와 같이 성인애착은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성인애착이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 진로장벽에도 타격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

고 있다[7-8].

이러한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장벽을 방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적응하는 개인의 역량인 회복탄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9]. 회복탄력성은 인간의 긍정적인 발달과 이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10], 이는 개인이 부정적인 상황일 경우 건강과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이다[11]. 또한 London과 Mone(1987)에 의하면 탄력성은 진로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극복하도록 돕는 핵심요소라고 하였다[12]. 실제로 회복탄력성과 진로장벽,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한 김정아(2016)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해 자살생각을 낮추주며, 진로장벽과도 부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돕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회복탄력성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가정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력성은 성인애착과 진로장벽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있어 어떠한 개인의 내적 특성이 영향을 주는지 확인함으로써 진로장벽 대처에 통합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대학생시기에 안정된 애착은 회복탄력성 수준을 높이고 진로장벽 또한 낮추는 효과를 갖게 되는 바, 이에 대한 관계성 규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로장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진로결정이나 진로포부 등에 대한 진로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로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을 뿐,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 영향을 주는 심리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인애착과 진로장벽 간의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한 관계성을 규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장벽 간에서 회복탄력성이라는 심리내적 역량의 관계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장벽 수준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가정,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애착에 대한 정보제공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진로교육을 비롯하여 자기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성인애착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 중요한 타인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을 작동 모델로 내면화하게 되며[14], 부모의 자녀에 대한 민감한 반응성은 자녀가 성장해서 일생동안의 상호작용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통합과 자기가치관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15]. 애착은 평생 동안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성될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 결과[16-17]에 근거하여 애착은 영·유아기의 시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도 형성, 유지, 발전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인기에 형성되는 애착이 성인 애착이며, 이를 Berman과 Spering(1994)은 성인기에 특정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신체적·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8].

성인애착(adult attachment)은 생애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인 표상의 형태로 내재화된 것으로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 신뢰감과 안정감을 얻기 위하여 선호하는 특정한 인물과 밀착되어 유지하려는 경향이다[19]. 이와 함께 신체 또는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에 주관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특정한 인물을 찾고, 접촉을 더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의 안정적인 성향을 말한다[18]. 이와 함께 차정은(2016)은 성인애착을 정신건강과 상당히 많은 부분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20].

구체적으로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관계에서 걱정이나 불만족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은 타인의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평가절하와 친밀감에 대한 불편함에 기인하여 그들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성인애착의 구성요인은 학자들마다 애착 유형을 다르게 구분하였다. George 외(1985)이 만든 성인애착면접법(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은 성인애착에 대하여 안정자율형, 불안정 거부형, 불안정 집착형, 미해결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21]. Hazan과 Shaver(1987)는 아동기 애착 양식에 상응하는 성인애착의 양식을 안정형(secure), 불안-양가형(anxious-ambivalent), 회피형(avoidant)으로 구분했다[17]. Collins와 Read(1990)는 자기보고식 성인애착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그 하위유형은 의존, 친밀, 불안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22].

한편, Brennan, Clark와 Shaver(1998) 등은 애착양

식을 유형으로 유형화하는 것보다 성인애착회피와 성인애착불안 두 가지의 차원이 더욱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23]. 국내에서도 김성현(2004)은 성인애착을 이와 같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으로 보고 연구하였다[24].

2.2 진로장벽

진로는 한 개인의 가치관, 태도 및 기대감을 포함한 것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직업이상의 의미로서, 일생 동안 일에 대한 가치와 직업의 정체성을 구체화시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달하게 된다[25]. 특히, 대학생 시기에 본인에게 맞는 진로나 직업을 탐색해 진로와 관련된 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어떤 시기에 이르러 갑자기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현상이 아닌 발달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26].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경우, 진로 준비과정에서 취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실습 또는 주변인들과의 취업관련 상담 등에서 겪게 되는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은 개인내적 심리적 문제인 내적인 장벽과 개인 외부의 환경에서 받게 되는 외적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진로장벽은 개인의 사회진출을 방해하는 객관적인 외적요소와 개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내적 갈등이나 문제가 포함된다[27]. 따라서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에 대한 진출을 방해하는 장벽 또는 지각된 장벽으로 정의하거나[28], 진로와 관계된 장벽[29]을 의미한다. 이성식(2007)은 진로장벽은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경험들로 취업, 진학, 승진, 가사와 직장생활의 병행, 직업의 지속, 직무행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포부, 목표,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행동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나 상황들로 통칭된다고 하였다[30].

대학 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하는 진로 발달 과업이다[3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 향후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정의[32]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진로장벽과 관련해 많은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 중, Swanson과 Tokar (1991)에 의하여 만들어진 진로장벽검사(Career Barriers Inventory: CBI)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검사도구이며[33], Swanson과 Daniels(1995)에 의하여 진로장벽 검사 개정판(CBI-R: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이 만들어졌다[34].

Tak과 Lee(2003)는 Osipow 외(1980)의 진로결정척

도를 바탕으로 한국형 진로미결정검사(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척도를 개발하였다[32,35]. 이 척도는 직업정보부족, 우수부단한 성격, 자기 명확성부족, 필요성 인식부족, 외적인 장애 등으로 구성되었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Tak과 Lee(2003)가 개발한[32] 한국대학생 진로결정 장벽 검사(KCII)를 사용하였다.

2.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중대한 위기나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극복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심리학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정신적 저항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36]. 특히 청소년들의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능력과 태도를 밝히는 유용한 개념으로 이해된다[37].

Waters와 Sroufe(1983)는 회복탄력성을 발달적 성과를 훌륭히 달성하기 위하여 내적·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38], Luthar(1991)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일지라도 스트레스의 영향을 덜 받으며, 유능감을 발휘해 스트레스 상황에 기능적으로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39]. 김주환(2011)은 스스로에게 향하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발전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으로서, 즉,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여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인간의 총체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40]. 정리하면, 회복탄력성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며, 일의 수행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복과 성공의 기본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Reivich & Shatte, 2002).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진로장벽을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스스로가 적극적인 준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회복탄력성의 역할을 가정하였다. 또한 김주환(2011)의 정의에 의해 회복탄력성을 내적·외적 위협요인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이에 대한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인간의 총체적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40].

회복탄력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학자나 측정도구에 따라서 하위요인 역시 다양하게 정의된다[42]. Wagnild와 Young(1993)은 회복탄력성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자기신뢰, 인내심, 독립심, 평정심을 제시하였고[43], Constantine 외(1999)는 회복탄

력성의 하위요인을 개인 능력, 목표지향 능력, 사회 능력으로 구분하였다[44].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회복탄력성지수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개발했던 Reivich와 Shatte(2002)는 회복탄력성에 대한 구성요소로 충동통제력, 감정조절력, 현실적 낙관성, 원인분석력, 자기효능감, 공감능력, 적극적 도전성을 제시하였다[41].

국내의 연구에서는 이해리와 조한익(2005)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측정을 위하여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를 개발하여 개인의 내적 특성 척도와 외적 보호요인 척도로 구분하였다[37]. 이후 신우열 외(2009)는 Reivich와 Shatte(2002)의 회복탄력성지수검사(RQT)를 한국의 실정에 맞춰 번안하면서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를 통제력, 긍정성, 사회성으로 구분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신우열 외(2009)가 제시한 것을 사용하였다[41-42].

2.4 선행연구

대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주목하는 변인으로 진로장벽은 개인의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무력감을 갖게 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이나 우울한 정서 등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진로장벽이 높게 지각된다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과 관련성이 적은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45]. 즉,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파악하고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은 자신의 현실과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 간의 차이를 줄여서 대학생들이 합리적인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45]. 진로장벽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으로 부모애착, 자아효능감, 자아정체감 등이 언급되었다[46-47].

특히 애착이론은 초기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관계에서 부모애착이 진로발달과 진로장벽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입증되었다[48-49]. 하지만 대학생 시기는 부모애착과는 별도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이 중요해지면서 진로결정에 성인애착이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으나[50-51], 정작 성인애착과 진로장벽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인영(201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성인애착이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 자기조절능력, 긍정성 모두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52]. 즉 성인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수연과 김용수(2015)는 불안정 성인애착과 생활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연구결과, 불안정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과 부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불안정 성인애착의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3].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 시기에 비해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부모보다는 친구 또는 연인과의 관계 비중이 높아지므로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1. 대학생의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채은과 조규판(2012)[5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인애착, 진로장벽,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성인애착과 진로장벽의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성인애착이 높아질수록 진로장벽의 수준도 높아져, 결과적으로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인선과 주은지(2019)[55]는 성인애착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으며, 진로장벽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아닌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성인애착과 진로장벽에 대하여 부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최인선과 주은지(2019)는 성인애착이 높아질수록 스스로의 진로장벽을 낮추는 결과가 아닌 높은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2. 대학생의 성인애착은 진로장벽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복탄력성과 진로장벽 간의 관계에서 London과 Mone(1987)는 회복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극복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12]. 또한 김미경(2014)은 탄력성이 비교적 높은 개인은 불확실하고 좌절되는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목표 달성과 직업에 대한 적응 및 성공을 추구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56]. 즉, 심리적인 회복탄력성이 큰 학생

의 경우, 진로장벽을 지각함으로써 오히려 대처할 수 있는 효능감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가능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57].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3.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진로장벽에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경(2014)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진로장벽과 자아탄력성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진로장벽을 보다 높게 지각하더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진로장벽에 대한 부정적인 역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58]. 이와 같이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진로장벽의 부정적인 역할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학생들의 성인애착과 진로장벽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4.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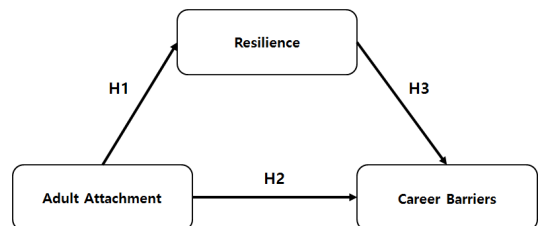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인애착은 김성현(2004)이 한국판으로 변안하여 타당화한 '친밀관

계 경험 검사 개정판(Experiences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 ECR-R)'을 사용하였다[24]. 하위 요인은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거절과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애착불안'과 친밀해지는 것을 불편하고 꺼리는 정도를 측정하는 '애착회피'의 두 개로 구성되었다. 애착불안 문항 18문항, 애착회피 문항 18문항,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회피 및 애착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각 점수의 합이 낮을수록 안정적인 애착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값은 애착불안 0.936, 애착회피 0.912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은 Osipow(1999)의 진로결정척도를 Tak과 Lee(2003)가 한국 대학생들에게 타당화한 직업미결정요인 탐색검사(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를 사용하였다[32,35]. 이 척도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보이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5개의 하위요인, 직업정보 부족(6문항), 자기 명확성 부족(4문항), 우유부단한 성격(4문항),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장애(4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값은 직업정보 부족 0.900, 자기 명확성 부족 0.924, 우유부단한 성격 0.826, 필요성 인식 부족 0.700, 외적장애 0.751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신우열 외(200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회복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42]. 하위 요인은 세 개로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제성 9문항, 긍정성 9문항, 사회성 9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값은 통제성 0.827, 긍정성 0.859, 사회성 0.852로 나타났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문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해 2019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4년제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시

간이 짧은 응답자 10명을 제외하고 2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90명 중 남학생이 143명(49.3%), 여학생이 147명(50.7%)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71명(24.5%), 2학년 70명(24.1%), 3학년 74명(25.5%), 4학년 75명(25.9%)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대학교 소재지는 서울이 104명(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43명(14.8%), 부산 24명(8.3%), 경상남·북도 26명(9%), 충청남·북도 19명(6.6%), 강원도 15명(5.2%), 전라남·북도 13명(4.4%), 대전 10명(3.4%), 대구 9명(3.1%), 울산 9명(3.1%), 인천 9명(3.1%), 광주 4명(1.4%), 세종 3명(1.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1과 Table 2와 같이 대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성인애착, 진로장벽,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t-test)과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로는 진로장벽의 자기명확성 부족($t=2.020, p<.05$)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M=3.16$)이 여성($M=2.89$)보다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Difference verification by sex (n=290)

Category		Sex	N	M	SD	F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Male	143	3.69	0.940	0.962
		Female	147	3.58	1.061	
	Attachment avoidance	Male	143	3.78	0.736	-1.360
		Female	147	3.92	0.953	
Lack of job information	Male	143	3.37	0.915	1.395	
	Female	147	3.21	0.997		
Career Barriers	External disorder	Male	143	3.86	0.764	-1.740
		Female	147	4.01	0.705	
	Indecisiveness	Male	143	3.15	0.918	1.670
		Female	147	2.96	0.959	
Lack of self-identification	Male	143	3.16	1.146	2.020*	
	Female	147	2.89	1.185		
Lack of awareness	Male	143	3.88	0.965	-0.767	
	Female	147	3.97	0.991		
Resilience	Controllability	Male	143	3.39	0.622	-0.105
		Female	147	3.40	0.475	
	Positive	Male	143	3.49	0.685	-1.559
		Female	147	3.61	0.603	
Sociability	Male	143	3.50	0.663	-1.764	
	Female	147	3.63	0.622		

* $p<.001$, ** $p<.01$, *** $p<.05$

또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로는 진로장벽의 외적장애($F=3.020, p<.05$), 우유부단 성격($F=2.798, p<.05$), 자기 명확성 부족($F=3.084, p<.05$), 필요성 인식부족($F=5.707, p<.01$)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 verification by grade (n=290)

Category		Grade	N	M	SD	F	Scheffe test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1 (a)	71	2.24	0.951	2.523	-
		2nd(b)	70	2.17	1.010		
		3rd(c)	74	2.55	0.941		
		4th(d)	75	2.48	1.071		
	Attachment avoidance	1 (a)	71	2.03	0.946	2.615	-
		2nd(b)	70	2.02	0.809		
		3rd(c)	74	2.16	0.878		
		4th(d)	75	2.36	0.748		
Career Barriers	Lack of job information	1 (a)	71	2.67	0.933	1.209	-
		2nd(b)	70	2.90	0.987		
		3rd(c)	74	2.63	0.970		
		4th(d)	75	2.66	0.942		
	External disorder	1 (a)	71	2.19	0.663	3.020*	-
		2nd(b)	70	2.19	0.769		
		3rd(c)	74	1.88	0.743		
		4th(d)	75	2.02	0.738		
	Indecisiveness	1 (a)	71	2.96	0.982	2.798*	c<b
		2nd(b)	70	3.15	0.908		
		3rd(c)	74	2.71	0.980		
		4th(d)	75	2.99	0.859		
	Lack of self-identification	1 (a)	71	2.86	1.256	3.084*	-
		2nd(b)	70	3.34	0.989		
		3rd(c)	74	2.82	1.223		
		4th(d)	75	2.90	1.148		
Lack of awareness	1 (a)	71	2.27	1.031	5.707**	c<a,b	
	2nd(b)	70	2.26	0.984			
	3rd(c)	74	1.70	0.856			
	4th(d)	75	2.06	0.944			
Resilience	Controllability	1 (a)	71	3.40	0.552	0.377	-
		2nd(b)	70	3.37	0.562		
		3rd(c)	74	3.45	0.560		
		4th(d)	75	3.36	0.540		
	Positive	1 (a)	71	3.54	0.649	0.999	-
		2nd(b)	70	3.45	0.656		
		3rd(c)	74	3.63	0.552		
		4th(d)	75	3.59	0.718		
	Sociability	1 (a)	71	3.49	0.641	1.331	-
		2nd(b)	70	3.50	0.712		
		3rd(c)	74	3.57	0.627		
		4th(d)	75	3.68	0.594		

*** $p<.001$, ** $p<.01$, * $p<.05$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AMOS 23.0과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Sobel-test를 사용하였다[59].

4. 연구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상담자의 태도, 상담소의 환경적 요인, 상담만족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행하였다.

Table 3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상담자의 태도, 상담소의 환경적 요인, 상담만족도의 개념신뢰도인 CR, 평균 분산추출지수인 AVE의 신뢰도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 0.5이상으로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970.605(p=.000, df=30)$, GFI=0.937, CFI=0.932, NFI=0.906, IFI=0.933, TLI=0.897, RMR=0.039, RMSEA=0.088로 연구모형의 변수에 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으며, 모든 요인부하량(λ)이 0.540에서 0.891로 나타나고 있어 각 요인에 관한 수렴타당성을 증명하였다.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Adult attachment	→ Attachment anxiety	.706	Fix	-	.754	.606
	→ Attachment avoidance	.695	.135	7.223***		
Career Barriers	→ Lack of job information	.757	Fix	-	.890	.624
	→ External disorder	.511	.064	8.093***		
	→ Indecisiveness	.804	.083	12.538***		
	→ Lack of self-identification	.702	.100	11.375***		
	→ Lack of awareness	0.54	.088	8.190***		
Resilience	→ Controllability	.891	Fix	-	.922	.798
	→ Positive	.834	.711	4.579***		
	→ Sociability	.825	.613	4.578***		

*** $p<.001$, ** $p<.01$, * $p<.05$

4.2 주요변수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진로장벽(직업정보부족, 외적장애, 우유부단성, 자기 명확성 부족), 회복탄력성(통제성, 긍정성, 사회성)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절대값 기준으로 0.243~0.782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각 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점도와 왜도가 ± 2 를 넘지 않게 확인되어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

	1	2	3	4	5	6	7	8	9	10
1	1									
2	.421**	1								
3	.342*	.331*	1							
4	.310*	.249*	.503**	1						
5	.346*	.439*	.609**	.348*	1					
6	.308*	.330*	.529**	.282*	.581**	1				
7	.244*	.243*	.427**	.551**	.273*	.359**	1			
8	-.342*	-.397*	-.366*	-.307*	.373*	-.291*	-.320*	1		
9	-.391*	-.490*	-.331*	-.411*	.319*	-.319*	-.287*	.477**	1	
10	-.566**	-.577**	-.384*	-.355*	.398*	-.343*	-.323*	.500**	.538**	1
Mean	2.36	2.15	2.26	2.71	2.07	2.95	2.98	2.07	2.57	3.39
SD	1.003	0.855	0.784	0.959	0.737	0.942	1.172	0.978	0.715	0.551
skew	-.156	.119	-.385	.017	-.406	-.016	.155	-.533	.219	-.245
kurtosis	-.427	.904	.588	-.589	-.624	-.371	-.978	-.719	-.465	.573

*** $p < .001$, ** $p < .01$, * $p < .05$
 Adult attachment=1: Attachment anxiety, 2: Attachment avoidance
 Career Barriers=3: Lack of job information, 4: External disorder
 5: Indecisiveness, 6: Lack of self-identification, 7: Lack of awareness
 Resilience=8: Controllability, 9: Positive 10: Sociability

4.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적합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960.705(p=.000, df=30)$, $GFI=0.935$, $CFI=0.931$, $NFI=0.905$, $IFI=0.931$, $TLI=0.894$, $RMR=0.040$, $RMSEA=0.089$ 등으로 나타나 χ^2 , GFI , CFI , NFI , IFI , TLI , RAR ,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Table 5. Research model fit

$\chi^2 (p)$	df	GFI	CFI	NFI	IFI	TLI	RMR	RMSEA
960.705 ($p=0.000$)	30	.935	.931	.905	.931	.894	.040	.089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살펴 보면, 다음의 Table 5와 같다.

성인애착($\beta=-.644, p<.001$)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애착($\beta=.502, p<.001$)은 진로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복탄력성($\beta=-.335, p<.01$)은 진로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C.R.	P	Sig.
Adult attachment	→	Resilience	-.644	.048	-3.807***	.000	Sig.
Adult attachment	→	Career Barriers	.502	.150	3.992***	.000	Sig.
Resilience	→	Career Barriers	-.335	.552	-2.708**	.007	Sig.

*** $p < .001$, ** $p < .01$, * $p < .05$

다음 Table 6은 성인애착과 진로장벽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1$), 간접효과($p<.05$)와 총효과($p<.001$)도 모두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성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Table 7. Indirect effect analysis of cc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Adult attachment	Resilience	Career Barriers	-.502	.004	-.216	.022	-.718	.000

*** $p < .001$, ** $p < .01$, * $p < .05$

성인애착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효과, 총효과, 간접효과 분석 후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 분석 결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을 부분 매개하여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8. Sobel-test result of resilience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Adult attachment	Resilience	Career Barriers	-2.123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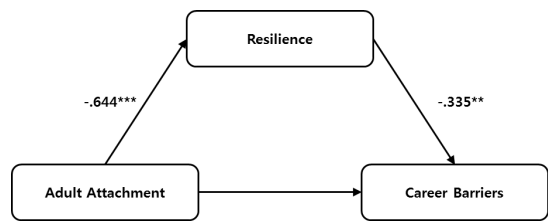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Results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장벽 간에서 회복탄력성이라는 심리내적 역량의 관계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장벽 수준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총 290명에 대한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수연과 김용수(2015)의 연구에서 안정적인 성인애착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53]. 즉, 대학생의 성인애착 중에서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의 부정적인 성인애착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인애착은 진로장벽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수임과 김창대(2009)의 연구결과에서 안정적인 애착이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48]와 맥을 함께한다. 즉, 대학생들의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서 장벽수준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은 진로장벽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경(2014)의 연구에서 진로장벽과 자아탄력성이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진로장벽이 높은 경우일지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진로장벽의 부정적인 역할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56].

넷째,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성인애착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여 진로장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인영(2014)의 연구에서 성인애착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다고 한 결과와 맥을 함께한다. 즉, 성인애착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진로결정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에서의 진로장벽 완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성인애착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

은 대학에서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정보제공을 통해 진로장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행은 취업고민으로 힘든 대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예방하고 취업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의 영향 관계를 파악한 결과, 회복탄력성과 성인애착 간의 영향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상담에 있어 애착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으며, 상담은 기본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적인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상담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담관계에서 내담자의 애착관계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과정의 내담자 애착에 대한 고찰은 상담에 대한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상담과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셋째, 성인애착, 회복탄력성과 진로장벽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앞으로 성인애착, 회복탄력성과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대학교에서 진로상담을 진행할 때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개인의 특성에 맞춘 상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진로장벽 척도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이루어져 있어, 각 변인들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수도권 지역의 연구대상자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입증된 만큼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검증을 한다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합적으로 진행한다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보다 유용한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J. A. Yu, E. A. Joe, A. R. Lee, "Mediating effects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barrier for undergraduat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0, pp.973-994, 2019.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9.19.10.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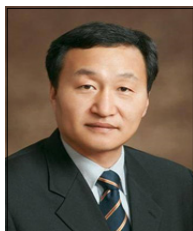
- [2] JoongAng Newspaper, *Youth unemployment rate of 10%...The highest unemployment rate since 1999 was 23%*. 12th September, 2018.
URL : <https://news.joins.com/article/22965496>.
- [3] E. Y. Son, S. H. Lee, "Reviews of research using career barriers inventories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3, No.3, pp.31-45, 2010.
- [4] R. W. Lent, S. D. Brown, G. Hackett,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5, No.1, pp.79-122, 1994.
DOI: <https://doi.org/10.1006/jvbe.1994.1027>
- [5] K.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parental attach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Master's Thesis, Iwha Women's University of Korea, pp.40-41, 2010.
- [6] K. D. Arnold, "Undergraduate aspirations and career outcomes of academically talented women: A discriminant analysis", *Roepers review*, Vol.15, No.3, pp.169-175, 1993.
DOI: <https://doi.org/10.1080/02783199309553495>
- [7] E. J. Lee, Y. S. Seo, "The relations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and psychological distress: Mediating effects of self-compassion and optimism",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Societ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6, No.2, pp.413-441, 2014.
- [8] M. R. Khodabakhsh, "Relationship of attachment style with empathy and interpersonal problems", *Global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Vol.2, No.2, pp.14-20, 2012.
- [9] S. S. Luthar, D. Cicchetti, B. Becker,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71, No.3, pp.543-562, 2000.
DOI: <https://doi.org/10.1111/1467-8624.0016>
- [10] M. Csikszentmihalyi, M. E. Seligman,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1, pp.5-14, 2000.
- [11] D. E. Cicchetti, J. E. Rappaport, I. E. Sandler, R. P. Weissberg, *The promotion of wellnes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2000.
- [12] M. London, E. M. Mone, *Career management and survival in the workplace: Helping employees make tough career decisions, stay motivated, and reduce career stress*. Jossey-Bass, 1987.
- [13] J. A. Kim, "The effects of resili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and career barrier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25, No.1, pp.161-183.
- [14] J. Bowlby,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3.
- [15] M. Marrone, *Attachment and interaction*, 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1998.
- [16] J. A. Feeney, P. Noller,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No.2, pp.281-291, 1990.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8.2.281>
- [17] C. Hazan, P. R. Shaver,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 No.3, pp.511-524, 1987.
DOI: <https://doi.org/10.4324/9781351153683-17>
- [18] W. H. Berman, M. B. Spering,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 (pp. 3-28). New York: Guilford Press, 1994.
- [19] M. West, A. Sheldon, L. Reiffer, "An approach to the delineation of adult attachment: Scale development and reliabilit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175, No.12, pp.738-741, 1987.
DOI: <https://doi.org/10.1097/00005053-198712000-00006>
- [20] J. E. Cha,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a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f Korea, pp.5-7, 2016.
- [21] C. George, N. Kaplan, M. Main,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85.
- [22] N. L. Collins, S. J. Read,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No.4, pp.644-663, 1990.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8.4.644>
- [23] K. A. Brennan, C. L. Clark, P. R. Shave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1998.
- [24] S. H. Kim, *Adaptation of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scale into Korea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response theory approaches*, Ma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3-5, 2004.
- [25] H. No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maturity levels to adolescent and SES(Social Economic Status) variabl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3, No.6, pp.306-327, 2006.
- [26] I. J. Chung, J. Y. Lim, M. H. Hwang,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scale for elementary schooler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24, No.3, pp.169-194, 2011.
- [27] H. S. Kang,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areer barrier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ypes of aviation-tourism service department students*, Doctoral Thesis, Sejong University of Korea, pp.12-13, 2015.
- [28] L. F. Fitzgerald, R. E. Fassinger, J. O. Crities, *Theoretical*

-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 B. Walsh & S. 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67-110, Mahwah, NJ: Erlbaum, 1995.
- [29] D. A. Luzzo, S. A. Jenkins, "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 among Mex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TCA-Journal*, Vol.24, No.10, pp.1-8, 1996.
DOI: <https://doi.org/10.1080/15564223.1996.12034467>
- [30] S. S. Lee, *A casual model among perceived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13-15, 2007.
- [31] S.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ositional variables,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8, No.2, pp.399-418, 2006.
- [32] J. Tak, L. Lee,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11, No.3, pp.328-345, 2003.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03254503>
- [33] J. L. Swanson, D. M. Tokar,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8, pp92-106, 1991.
- [34] J. L. Swanson, K. K. Daniel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17, pp.91-103, 1995.
- [35] S. H. Osipow, C. G. Carney, J. Winer, B. Yanico, M. Koschier,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rev.)*, Columbus, OH: Marstthon Consulting and Press, 1980.
- [36] E. S. Hong,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41, No.2, pp.45-67, 2006.
- [37] H. R. Lee, H. I. Cho, "A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of Korea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16, No.2, pp.161-206, 2005.
- [38] E. Waters, L. A. Sroufe, "Social competence as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Vol.3, pp.79-97, 1983.
DOI: [https://doi.org/10.1016/0273-2297\(83\)90010-2](https://doi.org/10.1016/0273-2297(83)90010-2)
- [39] S. S. Luthar,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 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62, No.3, pp.600-616, 1991.
DOI: <https://doi.org/10.2307/1131134>
- [40] J. H. Kim, *Resilience: A delightful secret that turns trials into luck*, Koyang: Wisdom House, 2011.
- [41] K. Reivich, A. Shatte, *The resilience factor: Seven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New York: Broadway Books, 2002.
- [42] W. Y. Shin, M. K. Kim, J. H. Kim,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20, No.4, pp.105-131, 2009.
- [43] G. M. Wagnild, H. M. Young,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Vol.1, No.2, pp.168-178, 1993.
- [44] N. Constantine, B. Benard, M. Diaz, *Measuring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traits in youth: The healthy kids resilience assessment*, In seven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Prevention Research, New Orleans, LA, pp.3-15, 1999.
- [45] C. E. Yoo, K. P. Cho, "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career barriers,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career decision levels and career aspir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2, pp.143-166, 2012.
- [46] A. C. Park, C. Y. Woo, "The relationship among high school students' attachment for their parents and peers depending on gender, self-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2, No.1, pp.69-85, 2008.
- [47] H. J. Jin,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in college students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Doctoral Thesis, Yeonsei University of Korea, pp.31-33, 2011.
- [48] S. I. Kim, C. D. Kim,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n career development and choices: A literature review in Korea",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0, No.3, pp.1573-1591, 2009.
- [49] H. J. Ahn, C. W. Lee, "The effects of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throug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Vol.24, pp.1-21, 2011.
- [50] S. I. Kang, M. C. Kang, Y. K. Kim, "The relationships among adult attachment style, parental attach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 Based o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2, No.5, pp.1703-1718, 2011.
- [51] H. M. Ja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etic attitude of parents and career adaptability*, Master Thesis, Konkuk University of Korea, pp.22-24, 2014.
- [52] I. Y. Park,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and adult in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decision making: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24-25, 2015.
- [53] S. Y. Shim, Y.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uncertainty adult attachment and life stress: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5, pp.95-105, 2015.
DOI: <https://doi.org/10.15703/kic.16.5.201510.95>
- [54] C. E. Yu, G. P. Cho, "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Career Barriers,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Career Decision Levels and Career Aspiratio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2, No.4, pp.143-166, 2012.
- [55] I. S. Choi, E. J. Joo,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in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27, No.3, pp.301-322, 2020.[56] M. K. Kim, *The development of career resilience scale for college students*, Doctoral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37-40, 2014.
DOI: <https://doi.org/10.21509/kjys.2020.03.27.3.301>
- [57] E. R. Son, "The role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in the process of career choi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5, No.3, pp.623-635, 2004.
- [58] M. K.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career barriers and suicide idea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Master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16-17, 2014.
- [59]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정 철 상(Jung chul sang)

[정회원]



- 2002년 3월 :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 (교육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역량, 청소년 지도, 이벤트, 축제